

# 사람과 일터를 이어

# 더 좋은 가치를 실현합니다

## 대한산업보건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



글 홍아름 사진 엄태현

55년, 반세기의  
시간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산업보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생일잔치가 열렸다.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기 가득했던  
대한산업보건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 현장으로  
들어가 본다.

##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산업보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더케이서울호텔 컨벤션센터 3층에서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창립 5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윤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작된 창립 55주년 기념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 고용노동부 고동우 과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미영 부위원장,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 전, 오프닝 퍼포먼스는 기념식의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구었다. 반세기 협회의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는 55주년 기념영상에서는 인포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 축사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고동우 과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미영 부위원장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 55years Anniversary

최수홍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나가며 현장과의 소통으로 산업보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내외 귀빈은 축사를 통해 창립 5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애정 어린 인사를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쾌적한 작업환경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불모지였던 산업보건 분야를 알리고 발전해온 지난 55년이 순탄하지 않았음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산업보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상식을 통해 협회 우수직원 14명에게 표창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국에서 산업보건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수직원에게 시상했으며,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해 서로 힘찬 박수로 사기를 북돋웠다. 산업보건 선언식에서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한 선언으로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선포했다.

사람과 일터를 잇고, 세상을 밝히는 더 좋은 건강 가치를 실현하는 것.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초심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보건의 발전을 위해 걸어갈 것이다. 🍷